

나의 아버지

장세경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를 낳아 키워 주시고 또 국어학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나의 아버지 장공 지영 님(자는 형옥[亨玉], 호는 열운[冽雲], 당호는 정일당[精一堂])은 한말 고종 24년(단기 4220년, 서기 1887년) 5월 14일에 경성부 서부 반석방 구순청계 야동(京城府 西部 盤石坊 舊巡廳契 冶洞 = 풀무골, 지금의 소의문=서소문 밖 순화동과 의주로 2가 사이)에서 인동 장공 은상(張殷相)님과 영해 박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1916년 충주 지씨 명희(池明喜)님과 혼인하시었다.

19세기 말 나라가 어려운 때에 태어나시어 파란과 고통과 곡절이 많은 삶을 사신 분이다. 유가의 집안에 태어나 학숙에서 전통적인 한학을 공부하시었으나 17세에 한성외국어학교 한어과에 입학하시면서 신식 교육을 받게 되고 충청공 민영환님의 자결에 큰 충격을 받고 애국심이 크게 고취되어 독립

운동을 할 결심을 하여 그 때부터 광복 때까지 반평생 넘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다. 물론 국내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비밀결사대 등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었으나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말을 가다듬고 지키는 일은 드러내 놓고 할 수 있었으므로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일찍이 주시경 선생에게 국어학을 배워 정주 오산학교, 경신학교, 배재학교, 중앙학교, 양정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으며 조선어 철자법에 대한 개인 학설을 만들어 발표하고 '조선어연구회'를 만들어 잃어 버릴 위기에 놓인 우리말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 편찬 작업을 벌이고 맞춤법과 표준어의 통일안 제정위원으로 참가했고 마침내는 일제에 의해 구속되어 갖은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2년여 옥고를 치르는 고통과 치욕과 울분의 시련을 겪으셔야 했다.

광복후에는 국어 부흥의 큰 일꾼으로, 국어학자로 활약하셨으며 1976년 3월 15일 90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치셨다.

필자는 1932년생이니까 아버지를 44년 동안 모시고 산 셈이지만 20년은 따로 살았으므로 직접 모시고 산 기간은 20년 남짓이다. 그 때의 기억을 더듬어 나의 아버지를 돌이켜 그리워하며 몇자 적겠다.

우선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윤리 도덕관을 가지셨으며 예의범절을 중시하시어 봉제사와 어른 공경과 자녀 사랑과 형제간의 우애 등 모든 면에서 범연하지 않으셨다. 물론 이러한 일의 근본 기저는 유교의 삼강오륜이었으나 지나친 형식주의나 비현실적인 인습은 따르지 않으셨다. 따라서 우리 형제들은 언어나 행동거지를 조심하여 도리에 어긋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았으며 가벼운 몸놀림을 삼갔다. 자라면서 욕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

을 정도이다. 아버지는 복장도 항상 단정하시어 흐트러짐이 없으셨다. 비록 체구는 작으셨지만 항상 뱃기에 위엄이 있으셨다.

사귀시는 친구도 인격이나 학식이 높고 정신이 개결한 분들이셨는데 간혹 집에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가서 뵈었다(‘뵈는다’는 말은 어른에게 절하고 꿇어 앉아 후 말씀이 있으시면 공손히 대답하고 물러 가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일어나 나가는 절차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예의범절을 중시하셨지만 누구보다도 개화한 분이시다. 어려서부터 교육기관에서 신학문을 배우셨고(중국어, 수학, 국어 문법 등이 주전공이셨다) 여러 교육 기관에서 교사로 봉직하신 만큼 신문화에 대한 수용도 상당히 앞서셨다고 본다. 그 한 예가 양력 위주의 생활이다. 조상님의 제사는 음력으로 모시나 아버지의 생신부터가 양력이고 오늘날 제사도 양력 날짜에 모신다. 우리 형제들 역시 모두 설과 생일을 양력으로 지킨다. 자녀들 교육도 개방적이시었다. 곧 가능하면 모두 고등교육을 받게 하셨다. 나의 큰누님은 1921년생인데 진명여고를 졸업하였고 우리 사형제와 누이동생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자녀들의 교육에는 남다른 정열을 쏟으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틈이 나는 대로 옛날 얘기를 해 주셨다. 대개는 우리 역사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후에 국사를 배우게 되며 확인된 것들이지만 몇 개 생각나는 것이 연개소문의 자식들의 불화로 고구려가 망한 이야기, 이성계가 함흥에 가 있을 때 있었던 함흥 차사의 이야기, 조선의 명의 허준 선생과 우암 선생 사이에 있었던 파쟁의 차원을 넘은 신의의 이야기 등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조선어학회 사건 때는 내가 어려서 분명한 기억은 없으나 집안이 갑자기

암울해지고 어머니가 먼 길을 먼회다니시느라고 고생하시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는 가운데 그 당시 학교에서 한국인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그 어린 학생들이(국민학교 4-5학년 때) 죄수의 아들이라고 멸시하거나 구박하거나 멀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어린 마음에도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있었던 듯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 기특하기만 하다.

함흥에서 풀려 나오신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다. 어느날 갑자기 헌병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잡아갔다. 그리고는 가택 수색을 하루 종일 하는데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아궁이 속까지 뒤지고 땅이 조금만 불룩해도 파 보는 그 끈질긴 수색이 너무나도 무섭고 그것을 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뵈기에 너무나 딱했다. 다행히 바로 놓여 나시기는 했으나 집안은 걱정 투성이었다. 그 때 만형이 경성제대 이공학부(지금의 시립 산업 대학터) 학생이었는데 다니기가 힘들어(집이 서대문구 북아현동) 학교 뒤쪽 불암산 밑 중계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곳에 집 한 칸과 배 밭을 사서 아버지도 아예 그 곳에서 농군이 되셨다. 잠시지만 아버지는 고된 격랑에서 비껴서서 밭을 가꾸며 세월을 보내셨다.

1945년 8월 15일 마침 집에 다니러 오셨던 아버지는 일왕의 항복 선언을 들으시고 목 놓아 통곡을 하셨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었던가? 이 날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 나가는 고통은 또 얼마이었던가? 그런 슬픔과 아픔을 이 울음으로 씻으려는 듯 많이 많이 우셨다.

광복이 되자 아버지는 우선 조선어학회를 다시 세우고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동지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던 중 미 군정청이 서면서 학무국 편수과(후에 문교부 편수국으로 승격) 부과장을 맡으라는 교섭이 왔다. 원

래 공무원 생활을 하신 일이 없는 터이지만 당장 교육용 교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약 3년간 문교부 편수국에서 교재 편찬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그 동안에 환갑을 맞으셨다. 조출하지만 기쁜 잔치를 벌인 기억이 난다.

광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나에게 국어학을 전공할 것을 권하셨다. 그 때 이미 만형 세원과 둘째형 세희는 화학을 전공하고 셋째형 세원은 상과를 지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국어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과서 편찬도 본체도에 올랐고 워낙 공무원 생활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나오셨는데 마침 연희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하므로 곧바로 연희대에 부임하셨다. 비록 노년에 맞이한 자리이나 오랜 역경 끝에 가장 마음을 붙이고 안락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 할 만하다. 국어학 연구에만 전념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기이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은 듯 1950년 민족의 환란인 6·25 동란이 터지고 청년들이 아들 넷(나도 19세였으니까)의 신변도 위협했고 여러 가지 처신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1·4 후퇴 때는 원래 부산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따로따로 떠났으나 뜻하지 않게 아버지가 타신 배가 제주도로 강제 이송되어 어려운 피난살이를 하시게 되었는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둘째부터 막내는 부산으로 와서 제각각 흩어져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다. 나는 1951년 1월에 해군에 입대하였는데 한동안 내 소식을 몰라 노심초사하셨다고 한다.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히 다시 모이게 되고 서울 환도 후에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가 있었다.

그러나 오랜 육고에서 온 후유증 특히 신경통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철저한 자기 절제로 건강 유지는 하셨지만 끊임없이 몰려오는 통증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편안하셨지만 신체적으로는 고통을 겪으셨다.

1962년 4월 그렇게 어리고 연약하여 못 미더워하시던 막내가 장가를 들어 마포구 동교동 작은 집으로 살림을 났다. 아버지는 그때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시었으나 매일 손녀딸 등교길에 길을 건너주시고는 곧바로 내 집으로 오셨다. 내 집은 대지 37평에 9평짜리 흙벽돌집이었는데 터는 비교적 넓은 편이었다. 나는 물론 출근한 뒤인지라 작은며느리를 데리고 화단을 가꾸셨다. 몇 그루 안 되지만 예쁜 꽃이 피는 나무와 화초를 심으시고 국화꽃을 가꾸셨다. 국화는 꽃이 지는 초겨울부터 재배가 시작되는데 말뚝 썩힌 것이나 부엽토 등에 심어야 하고 몇 차례의 분갈기와 결순치기, 줄기 세우기 등 손이 많이 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일일이 손수 하시며 또 며느리에게 가르치시곤 하셨다. 그래서 가을이면 내 집은 탐스런 국화꽃으로 가득차곤 하였다. 어른이 된 후의 일이라 지금도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앞에서 아버지가 근엄한 선비시고 독립운동에 전념하셨던 일을 말했는데 그러나 자녀나 족질, 동지의 자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셨다. 자녀들의 잘못은 엄히 꾸짖으셨으나 앓거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잠을 못 주무시며 걱정을 하셨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애쓰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엄한 일면에 자애가 깊으셨던 분이시었다.

서릿발 같은 선비정신과 바다와 같은 자애의 마음을 지니신 아버지도 남처럼 몇 가지 취미를 가지셨었다. 담배는 많이 즐기셨으나 술은 그렇게 즐기

지 않으셨으며 과음을 하시면 몹시 괴로워하신 것 같았다. 선비들이 흔히 즐기는 바둑과 장기는 남과 겨루는 것이 싫어서 그만두셨고 음악을 해 보려고 양금을 배워 보았으나 소질이 없어서 그만두셨단다. 그 다음에 심취하신 것이 사진 촬영인데 기술과 예술성이 필요한 것이라 아주 깊이 빠지셨다. 전문 서적을 보시고 집에 암실을 차리고 기재를 사서 현상, 인화, 확대까지 손수 하셨다. 그러나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오래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일이 화초 가꾸기였다. 살아 있는 생명체라 공을 들이면 들인 만큼 보람이 있으며 남을 속이거나 해꼬지하는 일도 없으며 정직하여 사람의 정성만큼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꽃 가꾸기야말로 가장 적성에 맞는 취미라고 하시며 노후까지 계속하셨으니 가히 전문가의 경지까지 이르셨다. 특히 국화 가꾸기는 유명하셨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일은 한의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셨다는 사실이다. 집안 식구의 병은 직접 진맥하고 처방 조제하셨으며 알음알이로 아버지께 진찰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직업적인 의사는 아니셨지만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가끔 뵈는 적이 있었다.

이렇게 환란과 고통과 보람과 행복이 교차한 90평생을 사신 아버지에 대하여 불과 후반 40년간의 추억을 서툰 글로 적는다는 것이 너무 죄스럽고 혹 누가 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나라에서 건국훈장도 드리고 이렇게 1997년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어 여러 가지 그 공적을 기리는 행사가 있게 되니 자식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 그 유지를 계승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이 글을 맺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애국애족의 일을 하신 뒤에는 우리 어머니(지명희 여사 1896년-1994년)의 내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어머니는 1914년에 배화여고를 졸업한 신여성으로서 그 당시 10여 명의 대기족이 사는 집에 시집오셔서 그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시며 남편의 독립운동을 묵묵히 뒷바라지 하셨고 6남매를 바르고 착하게 자라도록 키우셨고 수 년 동안의 옥바라지(그것도 멀리 함경도 홍원, 함흥을 오가며)를 하시면서도 어려운 살림을 지탱하여 오늘날의 영광을 맞으셨다. 온갖 대소사도 현명하게 대처하며 어루만져 주셨다. 훌륭한 한국의 어머니이셨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두 분이 저 세상에서는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통 없이 편안히,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기원한다.